

주요 테마

• 푸틴 대통령, 제 4차 동방경제포럼 참가자들을 위한 환영사 발표

• 바틀가 몽골 대통령, 2018-동방경제포럼 대표단 이끈다

• 동방경제포럼 스포츠 프로그램 발표



동방경제포럼 소식

2018년 9월 3일, 리아 노보스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제 4차 동방경제포럼 참가자들을 위한 환영사 발표.

푸틴 대통령은 그 동안 동방경제포럼은 정치인들, 재계 인사들, 전문가들 및 민간활동가들간의 직접적인 대화 창구가 되어왔으며, 올해 행사에는 60개국 대표단들이 참가한다고 환영사에서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특히 이번 포럼의 주제, '극동-가능성의 범위를 넓히면서'는 광활한 아태지역의 경제관계 시스템으로 러시아가 좀 더 긴밀하게 통합되고자 하는 우리의 희망을 반영한다고 언급했다.

<https://ria.ru/amp/economy/20180903/1527702336.html>

2018년 8월 31일, 렌타 통신

모스크바에서 중국 대표단의 2018-동방경제포럼 참가 관련 논의가 있었음.

안톤 코바코프, 대통령 고문 겸 동방경제포럼 조직위원회 담당 서기와 이후이 주러 중국대사는 극동 지역 행정 수반들과 중국 지방 주지사들이 참석한 행사 운영 문제를 논의했다.

이번 포럼에 중국측에서는 주지사, 정부인사, 국영공사 대표, 재계 대표 등 약 600여명이 참가한다. 2018-동방경제포럼에서 중국 대표단은 수적으로나, 대표단 대표 지위로 보나 최대 규모이다.

https://lenta.ru/news/2018/08/31/vef_china

2018년 8월 30일, 인테르팍스 통신

바틀가 몽골 대통령, 2018-동방경제포럼 대표단 이끈다.

델게르마 주러 몽골 대사는 이번 동방경제포럼에는 약 80명의 몽골 정부 인사와 재계 대표들이 참석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몽골 정부와 재계 대표들은 수산물 가

공 공장과 연해주 조선소 공장 방문을 검토하고 있다.

<https://www.interfax.ru/events/news/627156>

2018년 8월 30일, 러시아 가제타

일본 대표단, 2018-동방경제포럼 참가 관련 면담 진행.

안톤 코바코프, 대통령 고문 겸 동방경제포럼 조직위원회 담당 서기와 코주키 주러 일본대사는 제 4차 동방경제포럼 계기로 양국 관계를 논의했다. 올해 포럼에는 약 400여 명의 일본 공식 대표단이 참가한다. 이전에 알려진 대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대표단을 이끈다.

이번 면담에서는 러-일 정상 회담 프로그램 준비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와 함께 극동 범선 레게타 대회와 푸틴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후원하는 18세 미만 청소년 국제 유도대회 참여 등 일본 대표단은 포럼 계기 스포츠 행사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https://rg.ru/2018/08/30/v-moskve-obsudili-uchastie-iaponskoj-delegacii-v-meropriatiiah-vef-2018.html>

2018년 8월 30일, 이즈베스티야

한국 대표단, 2018-동방경제포럼 참가

베르만 프랑스 대사가 이끄는 프랑스 대사관과 러시아-프랑스 상공회의소 공동 고위급 사절단이 9월 11-13일간 열리는 제4회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다.

'로스뱅크', '인시스시스템스', Engie, Servier Russia, Electroshit - TM Samara, 엔지니어링 그룹사 'ARMO', Poma, VINCI Concessions, AECOM 등 러시아-프랑스 사업체 경영진 20명이 사절단에 포함된다.

<https://lenta.ru/pressrelease/2018/07/12/francevef>

2018년 7월 6일, FederalPress

제4회 동방경제포럼 참가자들을 위해 7000개 호텔 객실 준비

모스크바에서 안톤 코바코프, 대통령 고문 겸 동방경제포럼 조직위원회 담당 서기와 우윤근 주러 한국대사의 면담이 열렸다. 우윤근 대사는 정부 인사 및 재계 대표 등 약 200여명의 한국 대표단이 포럼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 대표단이 참가하는 2018-동방경제포럼 비즈니스 프로그램의 행사로 '러시아-한국' 비즈니스 다이얼로그와 '남북러: 새로운 경제협력의 미래' 패널 세션 등 한-러 포럼 행사 프로그램에 대한 별도 논의가 있었다. 이외에도 포럼을 계기로 한-러 기업협의회와 러-한 기업협의회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https://iz.ru/783677/2018-08-30/predstavitelnaia-delegatciia-respubliki-koreia-posetit-vef-2018>

2018년 8월 30일, gazeta.ru

2018-동방경제포럼 스포츠 프로그램 발표

2018-동방경제포럼의 핵심 스포츠 행사는 푸틴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후원하는 18세 미만 청소년 국제 유도대회로 이 대회에는 러시아, 일본, 몽골, 중국, 한국의 유도 선수들이 참가한다. 이외에도 세번의 범선 레가타 대회가 포럼 스포츠 프로그램에 포함되었다. '극동의 거리' 전시회 계기로 바둑대회와 마스-래슬링 대회가 열린다.

<https://www.gazeta.ru/gazeta/adv/11933515.shtml>

2018년 8월 29일, 리아 노보스티

노바텍, 2018-동방경제포럼에서 캄차트카 LNG 환적 터미널 건설 합의서 서명 계획

노바텍은 캄차트카에 LNG 환적 및 저장을 위한 터미널을 세울 계획이다. 이 사업의 민간 투자액은 약 700억 루블이다. 2022년에 터미널 제 1 트레인이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캄차트카 LNG 터미널은 연중 내내 북극항로를 거쳐 아태지역으로 LNG를 수출하기 위해서 건설될 예정이다.

<https://ria.ru/economy/20180829/1527400735.html>

극동 소식

2018년 8월 31일, 인테르팍스 통신

바니노와 소베트스카야 가반 자유항 개발에 1000억 루블 이상의 투자 계획

바니노와 소베트스카야 가반에서 진행될 최대 투자 프로젝트는 현대적인 석탄 환적 터미널 건설 사업이다. 특히 Daltranugol JSC는 연간 4천만톤까지 환적이 가능하도록 터미널을 재건축할 계획이다. 2023년까지 3트레인을 현대화하는 데 200억 루블의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콜마르 그룹은 무츠키 만에 석탄 터미널을 세울 계획이다. 콜마르 그룹의 1 트레인 건설 투자액은 330억 루블에 달할 것으로 평가된다.

소베트스카야 가반 지역에는 총 545억 루블에 달하는 15개 투자사업 신청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http://www.interfax-russia.ru/FarEast/news.asp?sec=1671&id=961903>

동방경제포럼 조직사 - 'RosCongress' 재단은 컨벤션 및 전시회 행사 조직 분야 최대 회사이다.

'RosCongress' 재단은 컨벤션, 전시회 및 공공행사 조직을 통한 러시아의 경제 잠재력 및 이미지 강화 기여를 목적으로 2007년에 설립되었다. 재단은 행사 콘텐츠를 제작하고 기관 및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컨설팅, 정보, 자문 지원을 제공하며 총체적인 러시아 및 글로벌 경제 연구, 분석을 진행한다. 오늘 재단이 매년 진행하는 행사들은 몬테비데오부터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개최지가 다양하며 이를 통해 한 자리에 세계 사업계의 리더들, 전문가들, 언론인들, 정부관계자들을 모을 수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프로젝트들을 논의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조성하며 공익사업과 자선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다.

www.roscongress.org